국악 명인들 한 무대 오른다

국립남도국악원 22일 '예인동행'
김수연 명창·채향순 명무 등
우리 가락으로 관객과 동행

김청만

신영희

원장현

이호연

아무래도 '호우시절'이라는 말이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근래 쏟아지는 장대비가 시절을 알고 오는 좋은 비 같지 않아서다. 연일 이어지는 우기에 시민들의 마음도 답답하기만 할 터다. 이럴 때일수록 아름다운 우리 가락 한 소절로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었으면 싶다.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명현)은 오는 22일 오후 3시 대극당 진악당에서 기획공연 '예인동행'을 연다. '명인', '명창', '명무', '명고' 등 우리 소리의 대가들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취지.

공연의 제목이기도 한 '예인동행'은 국악계의 예인(藝人)들이 모여 결성한 재능기부 공연 단체의 이름이다. 그동안 문화 소외지대인 교도소, 학교, 종교단체 등에 방문해 재능기부 공연을 펼쳐왔다.(이번 공연 또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수연 명창의 판소리 '수궁가' 중 '별주부 산신제 지내는 대목'이 공연의 막을 연다.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출정하기 전 산신께 제(祭)를 올리는 장면을 담고 있다. "한 곳을 바라보니 묘헌 김생이 앉었다. 두 귀는 쫑긋 눈은 도리도리 허리는 늘씬 꽁지는 묘똑"이라는 가사는 토 선생을 해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채향순 명무의 '승무'도 예정돼 있다. 절절한 북소리와 어우러지는 순백의 고깔과 얇은 사의 움직임이 기대된다. 고요함 속에서 움직이는 승무 특유의 '정중동(靜中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다.

이어 신영희 명창과 왕기석·왕기철 형제 명창의 춘향가 중 '어사상봉 대목'이 펼쳐진다. 어사또와 춘향이 상봉하는 감동의 장면이 절절한 목소리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무대에 오르는 왕씨 형제의 이력도 눈길을 끈다. 2살 형인 왕기석은 현재 국립전통예술고 교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동생 왕기철은 국립민속국악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원장현 명인의 '원장현류 대금산조'도 볼 수 있다. 국립국악원에 따르면 산조(기악 독주곡) 중에서도 다른 유파보다 본청(중심음)을 조금 낮게 잡는 원장현류 대금산조는 "편안한 음색과 다채로운 변주로 긴장감을 유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악 명인들이 열연하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아울러 이호연 명창의 '노랫가락', '태평가', '창부타령'과 진유림 명무의 '살풀이'도 선보일 예정이다.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와 제97호 살풀이 이수자인 진유림의 우리 춤사위도 펼쳐진다

대단원은 김수연, 신영희, 유영애 명창과 김영길(아쟁) 명인의 남도잡가 '육자배기'가 장식한다.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올라 우리 신명을 관객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남도, 경기소리, 기악, 무용 등 다양한 국악 분야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 참조, 국악원 장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군산 문화·역사에 애정 담긴 시선

광주독립영화관 '군산전기'·'수라' 상영…일제 상흔 등 담아

군산 지역의 유구한 문화·역사 자원들에 애정어린 시선을 담아낸 두 편의 독립영화가 온다.

먼저 도시 군산의 로컬리티를 사실적 필치로 그린 '군산전기'(19일 오후 1시 10분)를 19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영화는 1899년 개항해 500여 명의 한국인들과 77명의 일본인들이 모여 살던 작은 어촌마을 군산에 주목한다. 그곳에 아직까지도 적산가옥(일제 귀속재산)인 시마타니금고, 히로쓰가옥 등이 남아 있음을 예로 들며 일제 계획도시였던 군산의 상흔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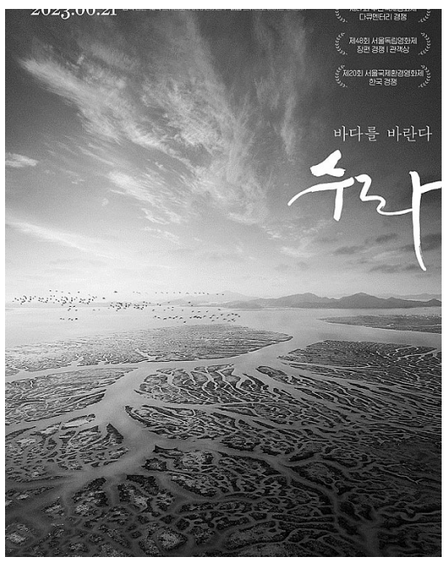
"군산이 가진 애환을 담아낸 장편 다큐멘터리"라는 한 줄짜리 로그 라인(영화를 요약하는 간단한 설명)은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군산은 일제 주도 하에 20세기 초 '조선 쌀 수탈의 전초기지'로 발전해온 양면성을 가진다. 이번 작품은 화석처럼 남아 있던 20세기 수난사를 핍진한 인터뷰, 로컬리티의 실질적 탐방 등의 형식으로 들여다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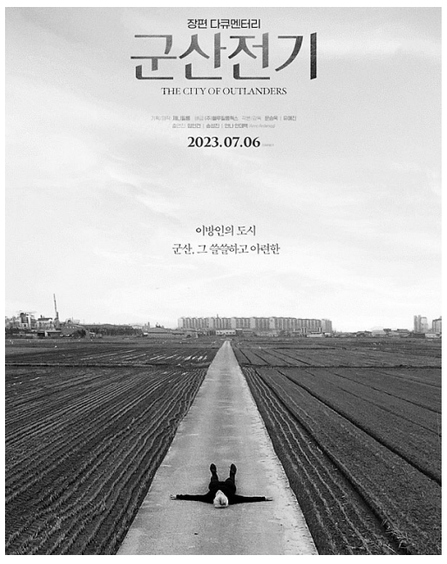
군산의 마지막 갯벌을 담아낸 영화 '수라'도 만나볼 수 있다. 다큐멘터리 독립영화임에도 누적 관객수 3만2000명의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작품으로 알려졌다. 오는 24일(오전 10시)까지 매일 광주독립영화관에서 상영(일자별 상영 시간이 달라 광주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참조)

작품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파괴되어 가는 갯벌 '수라'와 그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생물들을 이야기한다. '비단에 놓은 수'라는 이름 답게 수라 갯벌의 풍경은 장엄 그 자체다. 도요새가 찍어내는 발자국, 조개들의 걸음이 만드는 진흙 위의 지문들을 관찰하며 황윤 감독은 동물권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한 수라 갯벌의 새를 포착하기 위해 걸음을 옮기는 '동필'과 아들 '승준'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한 감동을 전달한다.

두 작품은 침체성에 빠진 지역 문화산업에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하나의 해답으로 로컬리티를 제시한다.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역사 자원들을 활용한 콘텐츠가 지역 문화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외에도 광주독립영화관은 '비밀의 언덕(23, 24일)', '작은정원(19, 26일)', '안나 푸르나(20, 22일)' 등도 상영할 예정이다. 예매가 8000원, 자세한 내용은 광주독립영화관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검정고무신' 원작자 손 들어준 저작권위

업체대표 캐릭터 9종 저작권 말소…판결 전 이례적 직권 처분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이 원작자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돼 있었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말소 이유로는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위원회가 이처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발 빠르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드문 일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고,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 말소를 해주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이처럼 직권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지면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특히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연합뉴스

상반기 K팝 수출액 1685억 역대 최고

美, 中 제치고 2위 시장으로

올해 상반기 K팝 음반 수출이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음반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일본에 이어 2위로 올라와 K팝이 북미에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낳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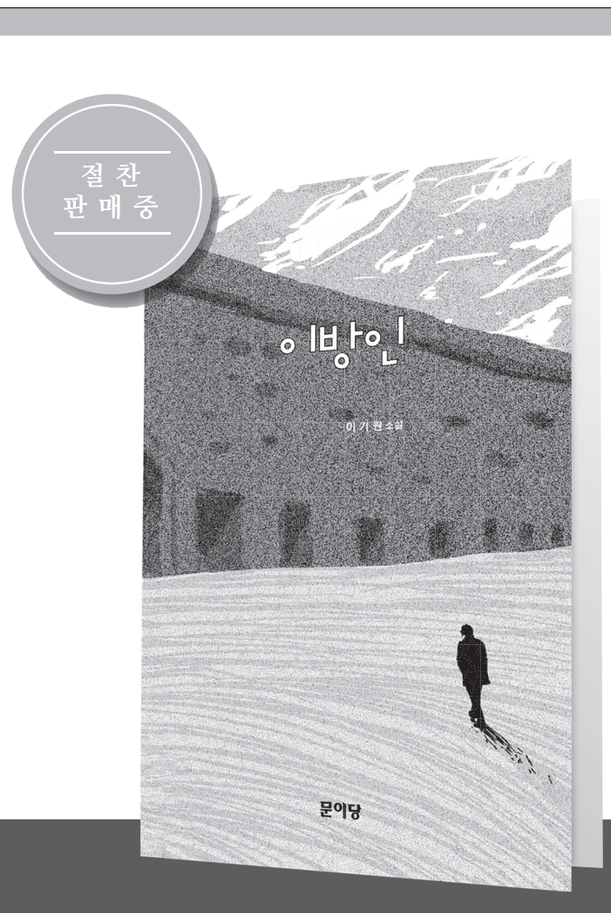
18일 관세청 수출입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음반 수출액은 1억3293만4000달러(약 1685억원)로 작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으로는역대 최고치다.

올해 상반기 음반 수출 대상국을 살펴보면 일본이 4852만3000달러(약 615억원)로 1위였다. 이어 미국 2천551만9천달러(약 323억원), 중국 2천264만달러(약 287억원)로 '빅3'를 차지했다.

독일, 대만, 홍콩,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어 상위 10개국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K팝 스타들은 '팝의 본고장' 미국에서 방탄소년단(BTS)의 팀 활동이 없었음에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방탄소년단 지민은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진입과 동시에 1위라는 대기록을 썼다. 또 스트레이 키즈와 투모로우바이투게더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지민·슈가, 세븐틴, 에이티즈, 트와이스는 2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영광의 사나이!
이기원이 쓴
이방인

대한민국엔 0.1%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
금수저로 불리는 불량 재벌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쥔
국회의원 등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듬고 재벌과 권력자들을 질타한 작품!!

서 점 판 매 | 영풍문고 충장서림 초원문고
인터넷 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배송료 무료)

문이당 | 15,000원